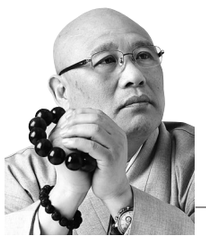
불자 세상보기

'자비의 촛불' 함께 듭시다



승한 스님
서울 금산사 주지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오르지 않고 있다. '좀처럼' 이라는 말도 어색하다. 2016년 세밑, 대한민국의 인심이 어쩌다 이리 됐을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도 아닌데 어쩌다 이리 꽁꽁 얼어붙었을까?

누구는 정치를 탓한다. 맞다. 결정적 주범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다. 현 대통령부터 최순실, 문고리 3인방들의 농단에 대한민국도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 정치도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 인심도 차갑게 얼어붙었다.

경제는 또 어떤가. 가진 자는 더 갖기 위해 더욱 악다구니를 쓰고, 못 가진 자는 어떻게라도 생존하기 위해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그런 시간에도 연탄 한 장의 무게마저 무거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 언덕을 오르는 사람들의 허리는 오늘도 노곤하다.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진 이후 23일이 지난 14일 오전 현재,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겨우 12.1도. 한겨울 북풍설한은 쌩쌩 광장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정치계는 물론 경제계 누구 하나 제대로 풍찬노숙을 덮어주는 이 없다. 지난해 모금 시작 일주일만인 11월 29일 414억 원으로 12.1도를 가리켰던 것에 비하면 턱이 없어도 너무 없다.

불과 1년 만에 백의의 대한민국 인심이 왜 그토록 황량해진 것일까. 꽁꽁 얼어붙은 것일까. 매스컴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진단하고 있다. '경기불황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여파로 기부금 모금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고.

모금회 관계자들도 입을 모은다. "정치 사회적인 현안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나눔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그런데 꼭 그뿐일까. 우리 마음이 지레 먼저 얼어버린 것은 아닐까. 내 한파만 한파고 남의 한파는 한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광장의 촛불에만 너무 매몰된 나머지 나눔의 온기를 잠시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도 '얼굴 없는 기부천사' 는 올해도 어김없이 황량한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지난 1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익명의 기부자가 현금 500만원이 든 흰 편지봉투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에 놓고 갔다고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 측면에 세워진 사랑의 우체통에서 발견한 봉투 겉봉에는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고, 봉투 안에도 5만 원권 지폐 100장이 담겼을 뿐 편지나 쪽지는 없었다고 한다.

맞다. 이게 진짜 나눔이다. 사랑이다. 자비다. 연민이다.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얼굴 없는 기부천사' 가 있는 한 우리 마음의 사랑의 온도탑은 항상 100도를 가리킬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을 통해 말씀하셨다. "나만을 위해 보시하지 말고 중생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라. 재물을 가지고 보시하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시하면 큰 공덕을 얻게 된다"고.

또한 〈잡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버리고 조건 없는 깨끗한 보시를 행하면 어느 곳에 처하더라도 항상 기쁨이 함께 하리라"고.

매주 토요일, 아직도 광화문 광장은 촛불의 뜨거움으로 채워지고 있다. 촛불의 열기 못지않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탑도 뜨거워지길 바라본다. 그리하여 단돈 1천 원이라도 들고 내가 먼저 '얼굴 없는 기부천사' 가 되어 광화문 광장에 서길 바라본다. 내 안에는 이미 '얼굴 없는 기부천사' 가 살다. 그분이 바로 부처이고, 부처의 길이고, 깨달음이다.

참고로 사랑의 온도탑은 사랑의 열매가 매년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금 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도록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 설치해놓은 것이다. 올 목표액은 3588억 원이다.

함께 쌓을 때 탑은 더 빛난다. 내 촛불의 뜨거움이 그 탑이 되길 기대해본다.

발언대

종교 성역화 국고 지원 논란

최근 종교계는 여러 성역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성역화 사업에는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종교자유종책연구원 등은 12월 12일 '종교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종무실 · 보조금 지원사업 폐지해야"



김정수 교수
한양대 행정학과

한국처럼 종교국가가 아닌 세속국가에서 종교에 대한 각종 국고지원사업은 종교에 대한 특혜부여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비종교부문과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예컨대 2013년 보건복지부 사업 중 '저소득 장애인 지원' 예산이 127억, '장애인 재활지원' 예산이 187억이었다. 그런데 같은 해 종무실의 종교시설 건립지원금만 무려 204억 이상이었고, 불교계를 위한 관광부의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만 해도 124억 원 이상이었다. 장애인 복지는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지원이란 점에서 보편적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결코 핍박받는 소외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막강한 특권계층에 가깝다. 그런데 국고지원금까지 더 많이 받는다면 이는 행정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 대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단 점에서 그 잠재적 위험성이 대단히 심각하다.

종교편향 시비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정부의 철저한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 배분과 관련된 종교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종교라는 요소를 분리하여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국고지원사업이라면 마땅히 '일정한 사회문화적 효과와 의미를 갖는 활동인지' 가 최우선적 기준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종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주무부서인 종무실은 폐지돼야 한다. 종교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킬 우려가 짙은 보조금 지원사업들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종교는 결코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국고사업 공공성 확보 중요"



박수호 연구위원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국고지원사업의 타당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과제다. 그러나 나는 국가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되는 정교분리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교분리 원칙의 적용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한다. 정교분리 원칙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국가의 종교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 건국된 나라다. 따라서 국가 간섭을 배제하는 문화적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와 종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돼 왔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토대로 하는 정치 및 사회질서에 의해 국가가 운영됐을 만큼 국가와 종교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했다.

따라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와 종교가 각각 상호배타적 영역을 설정하고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 각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상호 간섭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종교의 본질이 초월적 영성 추구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기독교적 종교관에 부합할지는 몰라도 유교나 불교 등 동양 전통종교의 종교관과는 맞지 않는다. 유교나 불교는 조화로운 세상의 구현을 위한 개인적 수양(수행)과 다양한 차원의 실천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종교 본연의 기능 외에도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을 수행한다.

종교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국고지원사업과 종무실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지원사업의 결과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공공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쪽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社說

차별금지법 제정 미뤄선 안된다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 일화다. 한 청년이 부처님에게 브라만이 특별한 잘못도 없는 이를 비난하거나 구타하는 행위를 벌인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한다.

"사람의 고귀하고 천함은 혈통이나 신분이 정하는 것이 아닌 행위가 정한다네."

부처님의 이런 차별없는 사상은 불교가 세상을 밝히는 종교가 된 씨앗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 성별과 나이, 종교와 성적 취향 등으로 다양한 차별과 편견이 있다. 특히 경제난이 겹치며 200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에 대한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UN이주민 권리협약도 비준하지 않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지속적으로 개악해왔다. 현장에서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들린다.

이주민을 비롯한 각종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자라는 우리들의 후세는 건강한 사상을 갖게 될까.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 카스트 제도 하의 브라만들처럼, 나와 계급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멸시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혐오, 멸시, 차별은 우리 사회를 옥죄는 올가미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단순히 처벌 규칙을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대국민 의식 개혁 등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도 함께 명시하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만약 부처님께서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민하는 한국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이제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이젠 그만

연말연시가 되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바빠진다. 바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와 맞물려 공개되는 것이 국세청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다. 다시 말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올해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58곳으로 종교단체는 48개로 전체의 83%에 달하는 수치다.

문제는 적발 종교단체 48곳 중 46곳이 사찰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중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사찰도 포함됐다. 특히 태고종 소속 사찰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신생종단 소속 사찰이거나 종단 확인이 불분명한 사찰들이 다수였다. 이중에는 사실상 점집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차제하더라도 사찰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당장 가톨릭 성당이나 원불교 교당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소식은 접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에 요구되는 것은 재정의 투명화이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재정 공개와 더불어 실천돼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이기도 하다. 특히 신생 종단일수록 건강한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재정의 투명화다. 이는 범불교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문화이다. 내년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에서 불교계 사찰 명단이 전무하기를 기대해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